

李朝末 貨幣整理事業에 관한 一研究

吳 斗 煥*

〈目 次〉

- I. 序 論
- II. 開港後 幣制紊亂과 인플레이션
 - 1. 外國貨幣의 流通과 幣制紊亂
 - 2. 幣制紊亂과 인플레이션
- III. 貨幣整理事業과 그 影響
 - 1. 貨幣整理事業의 經過와 目的
 - 2. 貨幣整理事業의 影響
- IV. 結 論

I. 序 論

李朝末의 경제는 산업부문별로 약간의 자본주의적 맹아가 나타나면서 商人資本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나 支配的으로는 신분제를 궁극적 기반으로 하는 自給自足의 自然經濟였으며 생산의 증가는 극히 완만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876年의 外壓에 의한 開港으로 韓國經濟는 先進 文物과 접촉·충돌하면서 불가피하게 世界資本主義의 商品經濟圈으로 편입되고 그 경제구조를 개편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화폐는 경제를 관통하는 혈맥으로서 그 自體의 발흥과 유통과정에는 역사발전에 따른 일정한 생산관계의 변모나 분업의 확대에 따른 시장의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李朝時代에는 상품경제의 未發達로 주로 穀·布·楮 등이 貨幣로 使用되었으나 末期에 이르러 銅錢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開港에 따라 外國貨幣가 混入되고 물가가 등귀하며 幣制가 紊亂해지자 한편에서는 開化派에 의한 幣制近代化의 努力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方向은 물질적 기초의 빈약으로 왜곡되어 갔으며 結果的으로 甲午改革은 世界商品市場으로의 중속적 編入을 의미하게 되었다.

* 啓明大學校 專任講師. 本論文은 1978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의 도움을 얻어 作成된 것임.

이 과정에서 自給自足の 경계는 파괴되고 商人 및 수공업자본은 쇠퇴했으며 농민분해가 촉진되었으나 그 과실은 일본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기여했을 뿐이다.

本論考는 李朝末의 幣制紊亂 및 그 整理過程의 因果와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自然經濟가 商品經濟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의 一側面을 解明하고 그 意味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II. 開港後 幣制紊亂과 인플레이션

1. 外國貨幣의 流通과 幣制紊亂

韓國 貨幣使用의 起源은 論者에 따라 箕子 혹은 檀君時代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確認할 길이 없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鑄錢 및 行錢에 관한 論議가 始作된 것은 壬辰亂以後 仁祖時代의 일이며 特히 孝宗時에 金堉에 의해 行錢論議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論議에 그치지 않고 鑄錢 및 行錢이 一般化되기 始作한 것은 肅宗 4년(1678年)의 常平通寶 鑄造以後의 일이다.

흔히 葉錢이라 부르는 常平通寶는 肅宗以來 그 鑄造時期, 場所 및 鑄造官衙에 따라 그 品位・量目이 相異하며 그 種類 또한 多樣하였다.⁽¹⁾

그러나 貨幣로서의 葉錢의 鑄造 및 使用上의 特徵은 그것이 처음부터 名目價値가 素材價値를 초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鑄造動機는 한편에서는 일반적 교환의 매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상업활동을 장려코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鑄造利益 確保를 통한 政府收入 增大에 있었다.

따라서 開城과 같이 일찍부터 中國行使臣의 路順에 들고 商業이 발달하여 貨幣使用의 편리함을 잘 아는 지역에서는 순조롭게 行錢이 시행되었으나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貨幣의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飲食店을 설치하거나 賦稅錢納制의 실시 등으로 그 使用의 편리함을 계몽함과 동시에 강제통용력을 부여코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폐의 사용은 한편에는 탐관오리의 탐욕이나 빈부격차를 낳는 등의 폐해가 있었으나 그 유통 영역을 점차 넓혀나갔다.

葉錢의 鑄錢量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정의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을 결여하고 있으나 當時의 資料에 錢貴物賤의 논의가 자주 보이고 아직 生産의 剩餘가 많지 않았으며 그 鑄造原料가 거의 輸入에 依存하여 구하기 어려웠던 점으로 미루어 과도하게 발생된 것 같지는 않다.

(1) 常平通寶의 種類는 사람에 따라 2000~5000種에 이른다고 한다. 豐福豐, 「朝鮮貨幣制度の沿革に就て」 幸田口利彦編, 『朝鮮舊時の財政金融慣行』, p. 274.

貨幣는 本質的으로 一定 社會의 至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社會的 同質性이 維持되고 그 強制通用力을 부여하는 국가의 권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그 素材價値와 관계없이 名目價値대로 통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常平通寶가 주로 발행되던 開港 以前의 李朝政府는 여전히 강력한 것이었고 또한 그 鑄造量이 과다하지 않음으로써 葉錢의 鑄貨機能은 事實上的 中量이나 一切의 價値로부터 독립하여 그 自身 價値章標(Wertzeichen)로서 昇化하였다.⁽²⁾ 따라서 葉錢은 素材價値와 名目價値가 괴리되고 그 品位·量目이 다양하였어도 모든 종류의 것이 同一의 通用價値를 가지고 諸商品의 交換價値를 표현하였다. 다만 葉錢은 價値章標로서 완전히 昇化한 無價値의 不換紙幣流通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자신 金屬價値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通用價値가 그 自身の 金屬價値보다 등귀한 경우에만 通用될 수 있는 것이었다.

葉錢의 鑄造利益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銅價上昇에 의해 적어졌으며⁽³⁾ 따라서 葉錢은 開港 當時에 있어서는 素材價値와 名目價値가 거의 一致하는 本位貨로서 機能하면서 그 價値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다만 葉錢은 小錢이므로 多額의 去來에는 運搬이나 計算上의 불편이 심했으며 따라서 그러한 불편을 除去하기 위해 多額去來에는 일찍부터 韓錢어음이 사용되었다. 韓錢어음은 정확한 규격이나 裏書도 없고 支拂日字의 明示도 없이 信用을 바탕으로 轉轉했으며 그 不渡를 막기 위해 엄격한 事後的 制裁가 가해지고 있었다.⁽⁴⁾

그러다가 大院君 執政時에 경복궁 복원사업을 위해 1866年 11月에서 이듬해 5월에 걸쳐 當百錢 千六百萬兩을 鑄造使用했으나 그로 因해 葉錢은 구축되고 物價는 폭등했다. 그러나 그 鑄造動機는 단순한 景福宮 복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茶山等의 大小錢併用의 논의에 따라 國民民福을 획책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⁵⁾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當百錢의 實價가 名目價의 1/20에 지나지 않았지만 鑄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通用이 원활치 못했던 것은 惡貨인 겹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當時 大院君의 一大 反對者였던 兩班 및 儒生階級이 大院君 政府를 비방·교란함으로써 社會的 同質性과 國家의 權威가 약해진 데서 그 원인의 一端을 볼 수 있는 것이다.⁽⁶⁾

(2) 金洸鎮, 「李朝末期における朝鮮の貨幣問題」, 『普專學會論集』, 第一輯, 1933年 3月, p. 303.

(3) 鑄錢事業의 收益率은 「肅宗 5年 50%, 英祖 7年 50%, 英祖 51年 30%, 正祖 22年 20%, 純祖 14年 10%」이었다고 한다.

元: 漢, 「18世紀에 있어서의 貨幣政策」, 『史學研究』, 第19號, p. 73.

(4) 예를들어 不渡가 발생하면 즉시 拘束하고 그 債務 變제를 인치 및 천지에 이르기까지 義務化시키는 慣習이 存在했다.

(5) 柳子厚, 『朝鮮貨幣考』, pp. 495-496.

(6) 柳子厚, 前掲書, pp. 496-497.

따라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當百錢이 物價上昇을 가져옴으로써 怨聲이 높을 뿐 아니라 當百錢이 租稅로 환수됨으로써 鑄造利益이 없어지자 大院君은 1868年 10월에 그 通用을 정지하였으며 그 方法으로 何等의 代償을 支拂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不信感을 심어주었다.

當百錢의 通用禁止로 심대한 財政的 손실을 입게된 政府는 이제 그 損失을 補贖할 目的으로 約 3~4百萬兩의 輸入 淸錢의 通用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부작용이 많아 閔妃는 執權 初인 1874年 1월에 또한 아무 代償없이 通用을 금지함으로써 不信을 증대시켰다.⁽⁷⁾

그후 1876年の 開港에 의해 海外使節派遣費, 賠償金, 開港費, 武器購入費, 新式軍隊設置費 등의 諸般 行政費가 加重되자 開化派와 守舊派와의 사이에 財政問題 解決策을 두고 첨예한 對立이 발생했으나⁽⁸⁾ 결국 守舊派의 案대로 1883년에 當五錢을 鑄造하기 始作하였다. 그리고 同年에 鑄錢事業의 統一的인 管理를 위하여 典圖局을 設置하였으나 運輸·交通의 不便으로 原料調達의 便利上 여러 地域에서 鑄造가 興해졌으며⁽⁹⁾ 더우기나 請負鑄錢制를 허용하고⁽¹⁰⁾ 權力을 背景으로 한 私鑄가 興해짐으로써 점차 그 품질은 더욱 粗惡해졌다.

그와 함께 1876年の 釜山을 始初로 80년에 元山, 83년에 仁川, 서울, 楊花津, 蔚興이 開港되고 貿易量이 增大하자 開港場을 中心으로 日人은 圓銀, 支那商人은 馬蹄銀 및 墨西哥銀을, 러시아人은 투블銀을 使用하기 始作하였다. 한편 기본적으로 韓錢이 그 特殊한 內容 때문에 國內流通의 한계를 넘어 世界貨幣로 될 수 없었음에 연유하는 것이지만 1880年 브라운(Brown)이 總稅務司로 부임하면서 1884年 第一銀行과 朝鮮政府 사이에 체결된 「海關稅取扱條約」에 의해 關稅 및 其他 收入에 韓貨와 함께 墨銀 및 圓銀의 사용을 인정하였고 그 후 다시 第一銀行手形의 使用을 인정하였다.⁽¹¹⁾ 그 후 墨銀은 점차 偽造 증가하고 日商이 진출함에 따라 구축되고 日本 舊圓銀이 支配的인 貿易通貨로 使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外國貨幣의 通用이 증가되고 當五錢이 남발되자 貨幣 그 自體가 一種의 商品으로서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이제 當一錢은 素材價値와 名目價値가 一定한 本位貨로서 觀세하고 當五錢은 當一錢에 대한 實質價値로 평가됨으로써 當五錢은 葉錢 二枚 혹은 當一錢과 同一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物價騰貴하고 租稅納付에서

(7) 元祚漢, 「當五錢攷」, 『歷史學報』, 第35, 36合輯, p. 316.

(8) 金玉均等 開化派는 外貨募集에 의해 해결코자 한데 비해 閔氏一派는 當五錢, 當十錢, 當百錢의 발행으로 해결코자 하였다.

姜在彥, 『朝鮮近代史研究』, p. 87.

(9) 元祚漢, 「當五錢攷」, 『歷史學報』, 第35, 36合輯, pp. 321-322.

(10) 元裕漢, 「典圖局攷」, 『歷史學報』, 第37輯, p. 53.

(11) 柳子厚, 前掲書, pp. 671-675.

는 當五錢을 그 實質價로써 징수하되 國庫收納時에는 額面대로 支拂함으로써⁽¹²⁾ 財政의 궁핍을 심화하는 등의 폐단을 남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화폐납탈을 가져오는 原因이 되었다.

이와함께 當五錢은 日貨와의 比價에서도 發行當初의 35割에서 1892년에는 3割로 놀라울 정도의 폭락을 보이게 되었다.⁽¹³⁾ 그러나 한가지 有意할 것은 當五錢이 단순한 物品貨幣로서 평가되는 경향을 가졌지만 여전히 韓國의 法貨였고 國內 商品去來에서의 支拂手段이었으므로 輸出入 貿易에서의 韓錢에 대한 需要·供給에 의해 日貨와의 比價가 결정되는 강점을 아직은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商品經濟의 침투가 덜 심했었던 점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약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當五錢은 物價騰貴 및 그에 비한 상대적 貨金下落으로 社會不安을 초래하고 財政窮乏을 가져옴과 동시에 商品經濟 침투로 농민분해를 가져옴으로써 이를 本位貨制度 확립을 통해 해결코자 하는 開化派 官僚 金嘉鎮 安滌濤 등을 中心으로 하는 幣制改革論議를 초래했다. 이들은 日人 顧問 大三 輸長 兵衛의 자문을 얻어 1891년에 「銀貨條例」를 제정했는데 비록 그것이 日本과 흡사한 銀本位制度를 수립코자 한 것이지만 後의 「新式貨幣發行章程」에 비해 朝鮮政府가 대표하고 통제하고 있는 힘과 질서가 日本側에 의해 犯해지지 않고 있는 데 特色이 있었다.⁽¹⁴⁾

그런데 이러한 改革方針에 대해 아직 自國의 貨幣制確立도 보지 못한 淸國의 反撥이 심하고 이와함께 貨幣法의 公布는 鑄貨權의 沒收과 權力의 전복으로 知覺한 保守派의 結束을 초래하여 「銀貨條例」의 실시는 沮止되었다.

1894년에 이르러 東學亂이 일어나자 이를 機會로 日本은 日淸戰爭을 도발하여 그것을 승리로 이끌고 동시에 日本資本主義 진출에 대한 一切의 장애물을 폐제하고 商品經濟의 發展에 필요한 基礎的 條件을 整備하기 위한 內政改革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同年 8月 甲午改革의 一環으로 「新式貨幣發行章程」이 公布되었다. 그 規格은 5兩銀貨를 本位貨로 한 銀本位制를 수립하되 5兩銀貨를 日本 圓銀과 同一하게 하는 비율로 日本과 同一한 화폐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점은 前의 「銀貨條例」와 거의 同一했으나 「銀貨條例」와 달리 僞造者 처벌에 관한 規定을 삭제하고 本國貨幣와 同質·同量·同價의 外國貨 즉 日貨를 國內의 無形通用貨幣로 인정한 점에서 뚜렷한 구별이 존재했다.⁽¹⁵⁾

이러한 改革의 직접적인 동기는 淸日戰爭中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常平錢에 대한 수요가

(12) 金充植, 『雲叢集』, 卷之八.

(13) 『仁川府史』, 1933年, pp. 1211-1212.

(14) 姜德相, 「甲午改革における新式貨幣發行章程の研究」, p. 98.

(15) 姜德相, 前掲論文, p. 100.

증가함으로써 그 市中 在庫가 고갈되고 값이 오르며 또한 운반에 불편하여 그 애로를 日本 貨 通用으로 타개코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멀리는 從軍商人에게 日本貨를 구매 및 支拂手段으로 인식시킴으로써 日貨 流通區域을 넓히고 日本의 商圈을 확대하며 商品經濟를 輿地에까지 침투시키는 效果를 가진 것이었다.

이와 함께 新式貨幣發行章程에 규정된 本位貨인 五兩 銀貨는 거의 발행되지 않고 鑄造利益이 많은 補助貨인 白銅貨만 주로 발행됨으로써 유명한 白銅貨 인플레이션 그리고 완전한 幣制紊亂을 보게 되었다. 즉 本位貨와 交換되지 않는 白銅貨만 남발되고 더우기 5兩銀貨는 발행되지 않아 日本의 圓銀 및 紙幣가 韓國의 法定 本位貨로 됨으로써 白銅貨는 이제 純粹한 物品貨幣로 전락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韓國의 主權 및 社會的 同質性이 약간 존재함으로써 白銅貨 및 日貨의 流通이 全國에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白銅貨 유통지역은 日淸戰 當時의 日軍의 通過地域 주변인 京畿 및 平安·黃海·江源·忠淸道 등이었으며 全羅道, 咸鏡道, 慶尙道는 완강하게 日貨 및 白銅貨의 混入을 금지하면서 葉錢 流通을 고수하였다.⁽¹⁶⁾ 따라서 同一한 국가내에 地域에 따라 상이한 화폐가 사용되는 奇現象을 보이게 되었다.

이때에 유통된 白銅貨의 量은 약 二千萬円 정도로 생각되며 이 중에 多數가 私鑄, 默鑄, 特鑄 및 大阪으로부터의 密輸入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當時에 流通된 日貨도 圓銀 약 300~350萬円에 達하고 紙幣도 巨額에 達했다고 한다.⁽¹⁷⁾ 이 과정에서 第一銀行이 1884年 大藏省과 그리고 1886年 以後 日本銀行과 계약을 체결하여 買入金을 利子附 혹은 無利子로 支援받아 金의 買收에 努力하였으며 이는 日本貨幣流通額의 增加, 韓國 對外支拂手段의 高갈을 解決하면서 日本의 金本位制確立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다가 1897年 日本이 金本位制를 채택함으로써 圓銀의 日本內로의 還收가 시작되자 韓國內의 日貨 流通量 不足을 우려한 第一銀行이 大藏省의 허락을 받아 刻印附 圓銀을 韓國內의 日本 法貨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難局을 타개코자 하였다.

한편 淸日戰爭의 뒷치리를 둘러싼 「三國干涉」의 成功과 러시아의 經濟적 南進政策 및 乙未事變 등으로 한국내에 靚露派가 득세함에 따라 1897年 「알렉시예프」가 財務顧問으로 되면서 1901年 「貨幣條例」를 發布하였다. 그 內容은 日本 圓銀의 國內流通을 금지하고 金本位制를 확립코자 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종래의 第一銀行에 對應할 만한 露韓銀行을 設立하여 韓國內에 러시아의 경제력을 증대코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南下를 두

(16) 柳子厚, 前掲書, p. 708.

(17) 이는 1897年 在韓日本人商業會議所의 조사에 의한 것임.

四方博, 「朝鮮に於ける近代資本主義の成立過程」, 京城帝大法文學會, 『朝鮮社會經濟史研究』, p. 71.

러워 한 英國의 우려에 의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同年 7월에 刻印附圓銀流通이 다시 허용되었다.

그러나 日本의 圓銀은 日本의 金本位制수립, 韓國의 一時的 通用中止, 北清事變 등으로 계속 流出되어 流通量이 부족되고 淸商에 대한 日商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자⁽¹⁸⁾ 이에 對應할 目的으로 第一銀行圈의 發行을 보게 되었다. 第一銀行圈의 발행계획은 초기에 몇차례의 심한 반발을 겪었지만 계속 그 발행량이 증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第一銀行은 이제 종래 한국에서 제일 유력한 은행에 지나지 않던 것이 사실상의 中央銀行의 地位를 차지하고 金融上의 覇者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白銅貨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商去來에 따른 불편이 심하자 1902年 3月 日本主導下의 列國使臣會議는 白銅貨의 더 이상의 鑄造를 막기 위한 諸般 조치를 취해 줄 것과 함께 그 流通區域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했다.⁽¹⁹⁾ 그와 함께 日本政府 스스로도 白銅貨의 日本으로부터의 密輸入을 막기 위한 取締令을 1902年 11月 7일에 발표하였다.⁽²⁰⁾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貨幣改革의 論議가 일기 시작하고 1904年 露日戰爭의 勝利後 무엇보다 먼저 幣制改革에 着手하게 되었으나 그 자세한 動機나 過程은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이다.

貨幣制度의 변천은 위에서 살펴본 바이거니와 貨幣紊亂의 眞正한 原因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外國貨幣의 侵入 및 商品經濟의 침투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幣制紊亂은 기본적으로 封建制度 自體의 모순과 財政窮乏으로 惡貨가 남발된 데서 그 연유를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잠재성에 그치지 않고 顯在化하면서 惡循環된 것은 開港과 함께 外國貨幣가 國內貨幣로 代置되기 始作하고 다시 甲午改革으로 制度化됨으로써 韓國貨幣가 完全히 物品貨幣로 전락된 데에 진정한 原因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惡貨鑄造 그 自體도 外勢의 侵入에 의한 封建政府에 내재하는 모순의 격화 및 분열로부터 연유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貨幣의 密輸入은 실로 그 類를 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방법으로 행해졌던 것이다.⁽²¹⁾

이러한 幣制紊亂이 結果한 인플레이션 및 그 영향은 節을 달리하여 살펴봄으로써 貨幣制度 변천의 因果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幣制紊亂과 인플레이션

李朝末의 중요한 經濟問題의 하나였던 인플레이션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기

(18) 淸商은 자기들 나름의 어음을 발행하여 마치 화폐와 같이 유통시키고 있었는데 그 有名한 것이 同順泰의 어음이다.

(19) 四方博, 前揭論文, p. 65.

(20) 『仁川府史』, p. 1229.

(21) 當時 白銅貨 密輸入 양태에 대해서는 『仁川府史』, p. 1228참조.

본적인 몇개의 문제가 있다.

우선 인플레이션을 一定 貨幣의 購買力の 低下로 定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韓錢 즉 當一錢, 當五錢, 白銅貨중에 어느 것을 價値尺度로 간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當時의 韓錢은 基本的으로 不換紙幣와 同一한 機能을 하면서도 동시에 紙幣와는 달리 金屬貨幣였으며 그 量目이 名目價値에 比例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同一한 種類의 貨幣도 그 品位・量目이 달랐고 따라서 通用價値도 달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一定 貨幣의 購買力을 어떠한 商品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비록 當時의 가장 중요한 생산물인 미곡을 중심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평가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貨幣經濟가 전국적으로 침투되고 貨幣의 通用圈이 統一되어 있어야 한다는 前提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制約條件을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物價指數의 時系列 資料를 求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며 현재로는 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는 物價上昇이 초래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 그것이 지니는 差別的 영향 그리고 幣制改革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이해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그런데 비록 앞의 制約條件들로 인해 不完全하기는 하나 米價를 中心으로 한 물가동위의 추세를 검토하여 보면 韓國米價는 크게 日本 및 開港場 주변의 米價 그리고 日貨에 대한 韓錢의 換率에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그리고 日本內의 物價가 韓國의 物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貿易을 中心으로 한 商品經濟 침투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韓錢의 交換比價는 韓錢을 物品貨幣로 전락시키면서 日貨를 本位貨임과 동시에 法定貨幣로 유통시켜가는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물론 이 두 요인은 理論的으로는 구분 가능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상호 결정되면서 나타난다.

開港後 李朝貿易은 그 물량이나 性格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²³⁾ 즉 開港에서 1894년에 이르는 시기, 그리고 1895~1904년에 이르는 時期 및 1905年 以後 韓日合併에 이르는 時期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開港에서 1894년에 이르는 韓國貿易의 特徵은 洋貨가 流入되면서 韓國의 手工業 및 農業分野에서의 商品經濟를 서서히 촉진시켜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1876~1894년에 이르는 時期는 다시 두개의 時期로 구분될 수 있다.⁽²⁴⁾

우선 1876~1882년에 이르는 기간은 李朝貿易을 日本이 獨占했던 時期로서 輸入品目은

(22) 金俊輔, 『韓國資本主義史研究(Ⅱ)』, p. 104참조.

(23) 堀村秀樹, 『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 龍溪書店, 1977, p. 31.

(24) 林炳潤, 『植民地における商業的農業の展開』, pp. 37-38.

주로 유린產 依類였으며 輸出品目은 주로 米穀과 大豆를 中心으로 한 農產物이었다. 그러나 이 時期의 農產物 輸出은 基本的으로 豐凶에 左右되었고 日本商人은 一定的 居留地와 그 近距離의 地域에 商業活動이 局限되었다. 따라서 李朝 農業에 대한 商品化의 契機은 그 經營組織이나 作付體係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1883年~1894年에 이르는 時期는 日·淸의 對李朝貿易 競爭時代였다. 이 기간의 特徵은 淸에 비해 對淸貿易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貿易品目에서는 주로 日商은 農產物의 輸出, 淸商은 綿製品의 仲繼輸入에 중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점차 교역량에 증대함에 따라 農業分野에는 輸出入에 따라 有利한 畑作物의 作付擴大와 不利한 畑作物의 作付減少라는 方法으로 商品經濟에 적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綿業에 있어 수도 商品經濟 契機에 따른 土布生産의 發展過程이 보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촌에 있어서 最上層과 最下層이 貨幣經濟에 먼저 편입되어 갔을 뿐이고 中農部分은 여전히 自給自足의 生活를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1894年의 甲午改革에서 1904年의 露日戰爭에 이르는 時期는 韓國經濟에 대한 商品經濟의 契機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日本 資本에 의한 왕성한 原始的 蓄積이 행해진 時期였다. 즉 1894年에 稅制가 金納化되고 日貨의 國內流通이 보장되었으며 1900年에는 京仁線이 개통되었으며 1903年에 京釜線이 一部 開通되고 1905年에는 完全 開通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外國人의 土地所有가 행해지고 또한 土地所有投資에 필적할 만한 정도의 效果가 있는 前貸金制度를 통한 日商에 의한 米·豆類·綿 등의 생산장려와 그 買集이 행해졌다. 또한 綿業을 위주로 한 手工業分野에서는 日本의 機械制 商品을 무기로 韓國의 小商品生産者의 市場을 거의 모두 흡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時期의 貿易品目은 여전히 農產物이 輸出의 大宗이었고 輸入은 綿製品이 中心을 이루고 있음에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貿易에 따른 國際收支를 보면 韓國은 1880年代 이래 계속 赤字를 나타나는 特徵을 지니고 있는데 日本과의 관계만 따로 관찰하면 1885年에서 1901年에 이르기까지 1886年과 1894年, 1895年을 제외하면 계속 出超로 나타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²⁵⁾ 이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韓國의 幣制紊亂과 重要的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제 韓國의 物價騰貴의 두 時期를 구분하는 當五錢인플레이션과 白銅貨인플레이션을 검토해 보자. 當五錢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은 基本的으로 그 品質이 粗惡하고 낡발된 것, 그리고 質穀으로 因해 日本의 米價가 韓國에 反映되고 米穀의 密貿易 및 先買慣習 등으로 因한 米穀供給量이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한다. 그와 함께 金買上에 따른 對外支拂手

(25) 林炳潤, 前掲書, p. 41.

段의 減少 및 兩班階級の 奢侈品에 대한 選好 등으로 外國貨幣을 높게 평가한 것, 韓錢에 대한 投機 등이 韓貨價値의 低落을 가져온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當五錢의 경우에는 그 價値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지렛대가 存在하고 있었다. 즉 아직 商品經濟가 輿地에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韓國商品의 구입에는 韓貨가 支拂手段으로 使用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仁川府史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開港 當時의 朝鮮은 金·銀도 物物交換으로서의 商品이고 또한 日本貨幣의 流通도 暢족하지 않고 따라서 商去來의 決濟用으로 여하든 韓錢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주로 日本商人은 輸出品의 買入, 淸國商人은 輸入品の 판매에 주로 종사하여 日商은 그 買入代金으로 淸國 商人으로부터 韓錢을 買入하여 韓國人에 支拂하고 韓人은 輸入品の 代價로서 다시 그것을 淸國商人에게 支拂하고 淸國 商人은 그것을 銀貨 혹은 橫濱爲替로 바꾸어 日本商人에 交付함으로써 韓錢은 항상 三國人間을 轉轉 授受하게 된 것은 韓錢의 強弱을 가져올 수 있는 材料가 되었다.」⁽²⁶⁾

그러나 白銅貨時代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強點이 사라짐과 동시에 商品經濟는 한국경제 구석구석에까지 파고 들었다. 甲午改革에 의해 政府는 關稅의 崩潰 및 기타의 警備를 貨幣로 支拂했으며 租稅의 金納化를 추진했다. 租稅의 金納化는 秋收期의 放穀을 초래했고 日淸戰 當時의 日本軍 出征으로 日貨 流通區域이 급속히 확대되고 그 國內流通이 公認됨으로써 韓錢의 日貨에 대한 交換比價가 폭락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또한 物價의 騰貴를 가져왔다. 그리고 財政窮乏으로 인한 白銅貨 濫發 외에 私黨化한 官僚組織에 의해 利權視된 鑄錢事業으로 獸鑄·特鑄를 통한 화폐가 濫發되고 더우기 그 以上の 密輸入을 초래함으로써 白銅貨 價値는 더욱 폭락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日本商人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基本的으로 韓貨時勢 下落은 주로 輸出貿易에 종사하는 日人에겐 有利한 것이었고⁽²⁷⁾ 따라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 그들은 日貨 流通區域을 넓히려고 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日人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이었으며 그 가격은 계절 변동이 심했다. 따라서 그 수확시에 구입을 위해 韓錢어음을 발행했다가 韓錢時勢가 높을 때에 그 변제를 요구받으면 그 차액만큼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존재했다. 그러므로 韓錢어음의 발행은 一種의 投機行爲와 다름없었다. 이에 따라 日商은 한편으로 輸出業者로서 韓錢時勢 下落을 利用하여 富를 축적하고 다른 한편 어떤 경우에는 支拂期日을 明示하여 韓錢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가능한 손실을 막으려고도

(26) 『仁川府史』, p. 1212.

(27) 韓錢어음은 주로 輸出에 종사하는 상인이 발행하는 것이었다.
四方博, 前揭論文, p. 55참조.

했다. 또한 日商은 輸入業者이기도 했으므로 일찍부터 海關稅 支拂에는 第一銀行 어음을 이용하여 韓錢 換率 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방지코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이런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甲午改革時 궁극적으로 日貨의 國內 流通을 圖謀했던 것이고 이제 1905년에는 幣制整理를 통해 韓貨 流通區域을 一掃코자 하였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植民地化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改革이 日本 資本主義가 獨占段階로 접어들고 또한 한국의 日本貿易에서의 入超가 두드러지는 時點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III. 貨幣整理事業과 그 影響

1. 貨幣整理事業의 經過와 目的

日露戰爭의 勝利後 日本은 1904年 8月 1日의 第1次 韓日協定 締結로 李朝政府의 外交・軍事 및 財政權을 장악하면서 幣制改革에 着手하였다.

1904年 10月 15日 朝鮮財政顧問에 目賀田種太郎이 취임하고 난 다음 그는 먼저 典圖局을 장악하고 同年 11月에는 12條의 貨幣制度整理案을 日本 外務・大藏兩省에 具申하여 承認을 求했는 바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²⁸⁾

- ① 韓國의 通商上 및 交通上 제일 近接한 것은 日本이므로 韓國貨幣의 本位는 그것을 日本과 同一하게 할 것.
- ② 韓國貨幣制度의 成否에 가장 利害를 가진 것도 역시 日本이므로 韓國政府는 日本政府 혹은 日本政府의 保證을 얻어 자금을 借入할 것.
- ③ 韓國貨幣의 基礎 및 發行貨幣를 全然 日本과 同一하게 할 것.
- ④ 韓國貨幣制度和 同一한 日本貨幣의 流通을 인정할 것.
- ⑤ 本位貨 및 兌換券은 日本것으로 하거나 혹은 日本兌換券을 準備로 日本政府의 감독 및 保證을 얻은 銀行券으로 할 것.
- ⑥ 補助貨는 모두 韓國政府에서 발행할 것 등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침 밑에 우선 日本의 金貨本位制度에 準하여 制定된 바 있었던 貨幣條例를 1905年 1月에 그대로 公布하였는데 다만 白銅貨의 還收命令은 6月 20日字로 내리되 同 7月 1日부터 착수한 것이 이 事業의 骨子이다.

貨幣整理의 담당기관은 第一銀行으로 정해졌고 朝鮮政府는 第一銀行으로부터 關稅를 담

(28) 姜德相, 「朝鮮貨幣整理事業에 關する 研究ノート」, p. 130.

보로 300萬圓을 빌려 다시 그것을 第一銀行에 交付하는 方法으로 整理의 費用을 마련하였다. (29)

貨幣整理의 실시는 1905年 7月 1日의 京城交換所를 始初로 平壤, 仁川, 鎭南浦, 群山 等地의 交換所가 開設됨으로써 始作되있는 바 그 交換 對象은 주로 白銅貨였으므로 먼저 白銅貨 選收狀況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白銅貨의 交換比價는 品位, 量目, 印象形體가 正貨에 準하는 것은 甲種으로 每個에 對하여 1/2로 減價한 二錢五厘의 比價로 定해지고 前項에 合當하지 않는 不正貨는 乙種으로 每個에 對하여 一錢, 그리고 形質 粗惡하여 貨幣로 인정하기 어려운 丙種은 買收하지 않기로 하였다. (30)

그리하여 交換의 一般的 狀況은 初期에는 鑑定標準과 관련하여 流說 百出했으나 점차 안정되어 順調롭게 進行되었으며 初期에는 交換으로 나중에는 白銅貨 流通量이 감소하면서 納稅, 買上 等으로 환수가 進行되있는 바 白銅貨 選收는 그 方法에 따라 <表 1>에서 보듯 세개의 時期로 구분될 수 있다. (31)

<表 1> 舊白銅貨選收種類別表

年 度	交 換	納 稅	買 收	度支部傳掌	計	액 번 금 액
光武九年	157,337,523枚	6,663,345枚	14,320,259枚	23,065,963枚	201,387,090枚	10,069,354.5 元
光武10年	11,208,491 "	49,459,246 "	4,417,659 "		65,085,396 "	3,254,269.8 "
隆熙元年	651,756 "	448,662 "	27,769,699 "		28,910,117 "	1,445,505.85 "
隆熙 2年	89,010 "	—	59,793,874 "		59,882,884 "	2,994,144.12 "
隆熙 3年	—	—	25,786,467 "		25,786,467 "	1,289,323.35 "
合 計	169,286,780 "	56,611,253 "	132,087,958 "	23,065,963 "	381,051,954 "	19,052,597.7 "

資料: 『韓國貨幣整理報告書』, pp. 97-100에서 작성

즉 第一期는 1905年 7月에서 12月에 이르는 時期로서 이 기간은 주로 交換에 의해서 환수된 시기이고 第二期는 주로 1906年 1月에서 12月에 이르는 시기로서 주로 國庫收納에 의해 환수된 시기였다. 그리고 第三期는 1907年 1月 以後로서 주로 買收에 의해 환수된 時期로서 이와같이 時期에 따라 환수방법을 달리한 것은 偶然의 結果가 아니고 환수에 대한 政策의 結果였다. 그런데 1907年 以後 交換이 급격히 감소한 데는 그 流通量 減少와 함께 그 時勢가 一定하므로 조금이라도 乙種이 나오면 손실이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進行된 白銅貨 選收過程이 적어도 韓國人에게는 결코 利로운 것도 順調로운 것

(29) 『韓國貨幣整理報告書』, p. 38.

(30) 『韓國貨幣整理報告書』, p. 52.

(31) 『韓國貨幣整理報告書』, pp. 100-101.

〈表 2〉 舊白銅貨還收地方別表

地 方	枚 數	地 方	枚 數
京 城	202,005,854	馬 山	30
仁 川	44,997,498	光 州	76
群 山	21,361,515	寧 邊	276,406
鎮 南	23,295,966	全 州	16,670
平 壤	49,577,374	海 州	5,007,070
大 邱	665,259	水 原	1,928,442
開 城	20,535,452	咸 興	2,997
元 山	5,968,425	清 州	85,026
鏡 城	4,400	義 州	51,808
春 川	827,929	新 義 州	363,873
忠 州	2,154,949	公 州	1,924,935
合 計		381,051,954	

資料：『韓國貨幣整理報告書』에서 作成

〈表 3〉 白銅貨交換額

年 度	枚 數	甲 種	乙 種	合 計
光 武 九 年 ⁽¹⁾		155,602,455枚	1,735,068枚	157,337,523枚
光 武 十 年		11,148,651枚	59,840枚	11,208,491枚
隆 熙 元 年		649,360枚	2,396枚	651,756枚
隆 熙 二 年 ⁽²⁾		88,503枚	507枚	89,010枚
總 計		167,488,969枚	1,797,811枚	169,286,780枚

註：(1) 7月以後 (2) 11월까지

資料：『韓國貨幣整理報告書』, pp. 76-79에서 作成

도 아니었지만 이는 다음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白銅貨 還收實績을 地方別로 보면 〈表 2〉와 같다. 〈表 2〉에서 白銅貨 還收 實績이 높은 京城, 平壤, 仁川 等地기 또한 그 유통이 많았던 지역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表 3〉은 白銅貨 交換額을 甲種과 乙種으로 區分한 것인 바 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乙種으로 制定된 화폐는 약 1%를 약간 초과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鑄造에 대해서도 當局은 白銅貨와 같이 환수 근절하려고 기도하였지만 거기에는 白銅貨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우선 그 문제를 검토하기 前에 葉錢 整理의 시기를 그 方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³²⁾ 즉 第一期는 환수의 준비기간으로서 整理着手에서 1906年 4월에 이르는 時期이며 第二期는 輸出時期로서 1906年 5월에서 1907年 7월에 이르는 時期이며 第三期는 還收의 時期로서 1907年 8月 以後에 해당된다. 다음의 〈表 4〉

(32) 『韓國貨幣整理報告書』, p. 119.

〈表 4〉葉錢還收 및 輸出高累年表

		光武九年	光武十年	隆熙元年	隆熙二年	隆熙三年	累 計
納 稅	枚 數	1,627,236	21,246,635	2,368,811	—	—	25,242,682
	金 額	1,607,014	21,246,635	2,368,811	—	—	25,222,460
買 收	枚 數	—	47,792	86,726,336	151,122,524	942,818,244	1,180,714,896
	金 額	—	47,792	170,567,231	302,235,526	1,885,636,488	2,358,487,037
計	枚 數	1,627,236	21,294,427	89,095,147	151,122,524	942,818,244	1,205,957,578
	金 額	1,607,014	21,294,427	172,936,042	302,235,526	1,885,636,488	2,383,709,497
輸 出	金 額	91,789,000	549,153,000	962,932,000	—	—	1,603,874,000
總 計	金 額	93,396,014	570,447,427	1,135,868,042	302,235,526	1,885,636,488	3,987,583,497

資料：四方博，前掲論文，p.117.

는 葉錢의 納稅 및 買收 그리고 輸出에 의한 그 還收 實績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第一期 및 第二期에 納稅 및 買收到 의한 還收 實績이 낮은 데에는 다음의 理由가 있다. (33) 첫째로 嶺南 嶺北 지역이 頑固하게 多年의 관습을 바꾸지 않고 嶺南 이외의 여하한 貨幣도 그것의 授受를 즐기지 않으며 둘째로 當時의 收入 官吏인 郡수가 그 國庫金을 國庫에 納付하는 데 있어 嶺南의 時價와 法定價格과의 差額을 얻기 위해 그것을 新貨와 交換하여 納付함으로써 일단 수득된 嶺南도 市場에 다시 유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째로 1907年 봄부터 世界의 銅 時勢가 騰貴함으로써 葉錢의 時勢도 계속 높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情들로 인해 當局은 嶺南 經理에 대해 積極적인 方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比價도 수시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그 比價는 1905年 一枚一厘로 했는데 銅 價의 騰貴에 따라 同 10月에는 一厘五毛의 비율로 公納에 應당케 하고 1907年 2月에는 一厘八毫五도씩 買收價格으로 하고 同 4月에는 二厘로 引上하여도 환수는 적고 嶺南의 市場 가격은 항상 그것을 上회하고 또한 多額이 輸出되는 形편이었다. 정부는 이에 1907年 6月 勅令으로 一枚二厘의 比價를 確定하고 一圓을 限으로 法貨인 것을 認定하였다.

다음의 〈表 5〉는 葉錢의 地方別 還收高로서 이를 통해 嶺南의 主된 流通地方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貨幣整理事業의 目的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보자. 目賀田種太郎은 「韓國에 本位貨가 없고 物價의 變動이 급심하여 商工業의 발달, 財政의 確立을 얻기 ため로 價格의 標準」을 定하는 ことを 目的으로 說明하고 있는 바이다. 물론 이도 目的이 아니었던 바는 아니나 보다 眞實한 것은 韓國經濟를 日本貨 通用圓으로 統一하면서 財政制度 整備과

(33) 『韓國貨幣整理報告書』, pp.119-120.

〈表 5〉 韓錢還收高地方別表⁽¹⁾

地	方	枚	數	地	方	枚	數
①	大邱	309,953,791	枚	⑧	咸興	69,596,495	枚
②	釜山	149,516,917		⑨	元山	65,626,801	
③	木浦	125,053,133		⑩	馬山	52,746,717	
④	城津	81,948,120		⑪	晉州	50,776,512	
⑤	群山	81,708,860		⑫	京城	14,783,068	
⑥	光州	78,469,305			其他	50,601,769	
⑦	全州	74,333,240			合計	1,205,957,578	枚

註：(1) 光武九年 8月부터 隆熙 3年 11月까지
 資料：『韓國貨幣整理報告書』에서 作成

함께 植民地 經營을 위한 기초구조를 확립함으로써 韓國經濟를 日本經濟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當時에 비교적 가치 안정되고 남발되지 않아 건전한 화폐였던 葉錢까지도 還收를 기도했던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貨幣整理後에 진전된 韓國의 商人 및 手工業資本의 沒落 그리고 利子和 利潤의 分離, 農民分解의 促進 등에서 살펴보면 貨幣整理事業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판단할 수 있다.

2. 貨幣整理事業의 影響

貨幣整理事業의 궁극적인 目的은 前節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이 事業은 그 수행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日本資本의 原始的 蓄積過程으로 代表되지만 그 내용을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韓人의 貨幣資產收奪, 商人資本의 沒落 및 農村의 金融梗塞 등이 그것이다.

우선 貨幣資產收奪을 보면 貨幣整理 當時에 流通된 白銅貨의 推定量이 約 2,300萬圓으로 생각컨데 비해 실제 還收된 것은 1,900萬圓 정도로서 約 400萬圓이 자연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다.⁽³⁴⁾ 그리고 白銅貨의 交換比價가 甲種의 경우 各目的의 1/2, 乙種의 경우 1/5로 정해짐으로써 그것이 최소한 본래의 半價 以下로 평가되게 되었다.

또한 貨幣整理의 政策이 日本에선 6월 21일에는 이미 알려진데 비해 韓國에선 6월 24일에 그것도 朝鮮人에게 6월 29日의 官報에 의해 알려짐에 불과했고 그 官報의 部數도 民間에 배부되는 것은 30部에 不過한 실정이었다.⁽³⁵⁾ 따라서 이는 日本商人에게 白銅貨 買占의 기회를 주었고 還收政策을 不信한 韓人에 의한 白銅貨 投賣現象을 초래함으로써 막대한 貨幣資產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하물며 白銅貨의 남발 그 自體가 무엇보다 日本人의 密輸入에 의한 것을 감안한다면 貨

(34) 『韓國貨幣整理報告書』, p. 100.

(35) 姜德相, 「朝鮮貨幣整理事業에 關する 研究 노트」, p. 134.

幣價値低落 및 그 整理로 因한 韓人의 손실은 바로 그만큼의 日本商人에게로의 자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 외에 貨幣整理事業은 多數의 民衆 貨幣財産을 一部人에게 집중시킴으로써 民衆의 土地와 생활자료와 노동의 수탈과정을 일거에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바로 原始資本蓄積에 의한 때 이른 無產者의 大量創出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최초로 交換이 始作된 京城에 있어서 韓商들은 처음 그 交換에 信用을 두지 않고 더구나 日本商人들은 流言을 퍼뜨려서 그 價格을 下落시키고 買占을 策動하였으며 여기에 韓商들의 白銅貨放賣가 급히 일어났다. 뿐만아니라 韓人은 幣制整理로 因한 손실을 우려하여 어음을 남발하여 物件으로 바꾸는 것을 서둘렀으며 따라서 일단 現金清算에 부딪치자 韓商人은 支拂할 現金이 없었다. 이로 因하여 특히 京城에서는 金融梗塞으로 恐慌狀態에 빠졌고 鍾路商人은 店舖를 닫고서 政府에 救濟를 呼訴함에 이르렀다고 한다. 실로 「於 音票는 종래에 대단히 信用이 있었던 制度로서 그 當時에까지 원활히 유통되었으므로 마침 舊貨整理로 幣路窮極한 時期에 그 신용을 이용하여 商人側이 어음을 남발하였다. 이 어음표는 실제의 支拂能力없이 말하자면 不渡於音票가 횡행하여 商界・財界가 混亂 莫狀이었다. 商人側에서는 金融逼迫으로 인해 질로 破쇄 내지는 피산자가 속출케 되었으며 商人들이 合同하여 商人保濟請願運動이 일어난 것이다」⁽³⁶⁾라고 한다.

이에 따라 나타난 朝鮮人 破產者 數를 보면 京城에만도 漢城・天一 等の 代表的 銀行을 비롯해 「三十萬元 以上の 것 十人, 二十萬元 以上の 것 二十人 以上, 十萬元 以上の 것 三十人 以上, 五萬元 以上の 것 百人 以上, 一萬元 以上の 것 五百人 以上」에 達했다고 한다.⁽³⁷⁾

이러한 幣制改革과 같은 時期에 行해진 外劃 및 差人制度의 폐지를 포함한 財政改革은 더 한층 韓國 商人의 금융 꺾박과 함께 그 몰락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地方의 金融梗塞을 초래하였다.⁽³⁸⁾ 즉 종래 地方의 行政官이 租稅 其他의 上納金을 數個月 혹은 數年間 商人에 貸與하여 자금 융통을 하는 길을 완전히 금지함으로써 韓國 商人의 日商에 대한 劣位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難局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政府는 1905年 12월에 日本政府로부터 150萬圓을 借入하여 錢慌에 대처한 金融資金으로 利用했다. 그리고 第一銀行은 그 去來先인 韓人에 대한 直接融通이나 不動產 담보 내지는 商品담보로 金融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淸

(36) 柳子厚, 『朝鮮貨幣考』, pp. 593-594.

(37) 姜德相, 前揭論文, p. 137.

(38) 靜田均, 『朝鮮に於ける金融組合の發達』, 成進文化社編, 『國學研究叢書 卷三』, p. 429.

國商人에 대한 어음割引을 통한 간접적인 韓人에의 資金流入 등을 통해 金融梗塞을 완화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第一銀行에 대해 同行 銀行券의 무제한 通用을 公認하여 中央銀行의 임무를 부여하고 또한 商品 담보 대부를 주요 업무로 하는 漢城共同 創庫株式會社를 設立하고 그와 동시에 경성, 평양, 대구 기타의 도시에 어음組合을 조직시켰다. 그리고 1906년에는 農工銀行條例를 公布하여 地方 商業의 金融難 완화와 함께 土地의 資本化를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農工銀行은 地主·富農外의 一般農民은 담보의 부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幣制整理를 통해 나타난 不作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된 金融制度의 確立過程은 사실은 韓國에서의 日本 金融資本의 移植과정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土地를 담보로 한 貸出으로써 錢慌을 완화코자 한 政策은 土地의 資本化를 초래함으로써 이제 貨幣 아닌 土地投機와 加一層의 原始資本蓄積을 진행해 나가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李朝末의 幣制紊亂의 경과와 인플레이션의 요인 및 幣制整理를 가져온 原因 그리고 그 귀결을 살펴보았거니와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자.

幣制紊亂은 韓國 政府의 힘이 약화되고 開港에 따라 外國貨幣가 流入되면서 象徵貨幣로서의 韓貨가 단순한 物品貨幣로 전락되는 과정으로 代表되고 이 과정에는 封建政府 自體의 모순과 外勢가 相互作用하면서 惡貨의 남발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幣制整理는 外國貨를 國內의 法定貨幣로 確立해 가는 과정이므로 실로 幣制整理는 幣制紊亂이 極에 達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幣制紊亂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큰 힘은 상품경제의 침투 정도와 韓貨의 外國貨에 대한 換率입을 보았다. 그런데 韓國 經濟는 1894년의 甲午改革으로 因해 外國貨가 本位貨로 代置될과 동시에 商品經濟發達의 획기적인 조치가 행해짐으로써 開港과 當五錢에서 비롯된 幣制紊亂과 인플레이션이 활짝 開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甲午改革은 이미 韓國民을 위한 改革은 아니었으며 단지 日本資本의 우위를 확립하고 韓國經濟의 日本 經濟圈으로의 編入過程을 安定化시킨 것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日商은 幣制紊亂의 原因입과 동시에 그를 利用해서 富를 축적한 적나라한 植民者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도 韓國經濟는 中農을 기반으로 하는 自給自足の 經濟圈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集錢流通圈

을 固守하고 있었다.

따라서 1905년의 幣制整理는 바로 日貨의 流通圈을 전국에 확대하고 全國을 商品經濟圈에 編入코자 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韓國經濟는 貨幣資產의 收奪, 商人資本의 沒落, 地方의 金融梗塞을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日本 資本의 노골적인 原始資本蓄積過程이었다. 그리고 金融制度整備를 통한 그 解決策은 土地의 資本化, 利潤과 地代의 分離를 통한 加一層의 상품경제화와 함께 進一步한 原始資本蓄積을 위한 制度的 장치의 마련에 本質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다.